자기 소개서

경력사항

[현실에 안주하지 않고,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]

2018년 저의 첫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메스 유럽에 입사한 후 항공 및 교통수배, 고객 관리로 첫 업무를 담당했습니다. 여행을 다니면서 알려진 여행지보다는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재미가 생겨 여행업을 선택하였지만 근무하다 보니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많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

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5개월 동안 여행 업무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여행사 창업 수업과 CRS 자격증 취득 수업을 들었습니다.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 수업을 듣느라 힘들었지만 제 업무의 중요한 기초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.

CS 업무, 수배능력 등 전반적인 직무 능력을 향상했고 이후 고객님의 상황과 여행 스타일을 파악하여 여행 일정을 제시하는 개별 여행 부서를 단독으로 맡아 진행했 습니다. 새로운 여행지 및 고객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단독 일정을 개발했으며, 개 별 여행의 좋은 후기가 올라오면서 다른 유럽 여행사에서 개별 여행 분야 부분만 협력체로 계약했습니다.

이처럼 제가 맡은 직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좋은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.

성격의 장단점

[사회생활에서의 기본, 성실함]

사람들과의 신뢰관계에서 성실함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학창시절부터 성실한 태도를 몸에 익히고자 노력해 왔고 어느 순간 저의 장점이 되었습니다.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지각과 결석은 하지 않았으며, 수업 시작 10분 전에 항상 강의실 맨 앞자리에 착석하여 수업을 준비하는 근면함을 보였습니다. 또한,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에는 늘 내 일터라는 주인정신으로 일했습니다. 그 달의 pb상품들의 특장점을 외워 고객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매달 pb상품 판매율1위를 차지했으며, sns에서 유행하는 상품들을 먼저 캐치해서 점장님께 말씀드리고 매대를따로 만들어 고객님들이 찾기 쉽게 배치해놓았습니다. 이런 한결같은 모습은 타인의모범이 될 만하다며 점장님께 신뢰를 얻었습니다. 이를 통해 어디에서든지 자신의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 사람들의 신뢰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

반면 저의 단점은 계획성입니다. 짧게는 하루 계획, 한 달 계획 등등 뭐든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이는데, 세워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소한 것부터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틀어질 수 있는 계획들을 위해 차선책으로 계획을 한, 두 가지 더 세우고, 자책하려고하기 보단 더 좋은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이러 부분은 업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업무에 대한 일을 할 때 계획대로 성실하게 임할 수 있고,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뚜렷한목표 의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특기사항

[용기 있게 도전하고 끝까지 책임지자]

대학교 봉사동아리 녹색지대 부회장을 맡고난 후 많은 봉사활동이 있었지만 그 중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"대학생 멘토링" 총 담당자를 맡았습니다. 이 프로젝트 "대학교가 위치해있던 성환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 중 정서정행동검사결과 우울, 자살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1:1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의 심리적 안정을위한 사회성 훈련을 도와주는 역할을 기대한다."라는 취지로 계획되었습니다. 처음맡는 프로젝트여서 걱정이 많이 됐지만 담당 교수님과 상의 후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부원들을 처음 모집할 때 매주 멘티를 만나야하고, 보고서도 써야한다는문제 때문에 동아리 부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했지만, 그에 따른 봉사시간, 장학금등좋은 방향으로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였습니다. 운영하면서 작고, 큰문제도 많았지만 부원들과 고등학생 멘티들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 탐색, 야구경기 관람등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제안했고, 8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난 후 설문조사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냈으며, 결국 다음해에도 운영이 되면서 저희 동아리만의 메인 봉사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.